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32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7월 25일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긴축기조 뚫고…광주·전남 내년예산 증액 확보

광주시 AI·모빌리티 등 중점 5.8% 늘어난 3조 3244억

전남도 3.4% 증액 8조 8928억원…47개 신규 사업 반영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를 뚫고 전년보다 많은 2025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관련기사 3면〉

시·도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올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 예산들이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27일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77조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2024년)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뒀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의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도 광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3조 32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3조 1426억원보다 1818억원(5.8%)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예산 규모 증가율(3.2%)도 뛰어넘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증액 활동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던 3조 2446억원보다도 798억원이나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사업과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 철도 특별법에 따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학교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9월 2~3일)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해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 8928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예산 1조 7000억원을 감액한 상황에서 9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린 민생 토론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뤄졌고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약했던 R&D 예산도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전남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9조 755억원)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예산(8조 6021억원)에 견줘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47개 신규 사업(총 사업비 2조 9879억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 1254억원이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첨단 R&D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 지역 내 기업·연구소 인프라 부재로 취약했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면서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런 세상이 오네요"…첫 드론배송 받은 섬 주민들 웃음꽃 활짝

여수 9개 섬 배송 서비스 개시

"피자 남의 나라 음식이었는데…"

치킨 달고 오는 드론 보며 환호

"오래 살다 보니 섬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네. 추석 때 손주들 오면 배달 음식을 먹어야겠네"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에서 평생 거주한 김상덕(여·90)씨는 27일 드론으로 처음 배송된 치킨과 탕수육을 받아들고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주민 43명이 살고 있는 상화도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려면 인근 개도까지 하루 한차례 운행하는 여객선을 타고 20분 가량을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이 곳 주민에게는 그동안 '배달 음식'은 그림의 떡이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TV에 등장하는 치킨, 피자, 햄버거는 다른 세상 음식"이라고 말했다.

상화도 주민은 앞으로도 배달음식은 물론 생필품까지 마을회관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섬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에 나섰기 때문이다. 드론 배송은 여수지역 3개 거점(진모·개도·작금)에서 물건을 싣고 출발해 9개 섬(송도, 상화도, 하화도, 제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금오도)에 서비스 된다.

27일 여수 화정면 개도에서 하화도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수취시설로 드론이 물품을 낙하시키고 있다.

각 권역별로 드론 통합관제센터에서 물건을 실은 드론을 날려 보낸다. 배송비는 여수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배송비 없이 음식이나 생필품을 배송 주문을 시킬 수 있다.

27일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물품수취시설에 주민들이 배송거점시설(개도)에서 비행을 통해 온 물품을 들어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섬지역 드론 배달 상용화 첫날인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상화도 마을회관 옥상에는 드론 배송을 기다리는 들뜬 표정의 주민들로 가득했다.

〈2면에 계속〉

/여수=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김도영 신드롬

새 유니폼 판매 200만명 접속

하루 만에 70억원 어치 팔려

'김도영 신드롬'이 그라운드 밖에서도 뜨겁다.

김도영은 올 시즌 '첫 월간 10-10'을 시작으로 '최연소 30-30'까지 각종 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KIA 타이거즈 1위 질주의 수훈 선수로 꼽힌다.

김도영은 마케팅에서도 KIA의 '대박 상품'으로 떠올랐다.

김도영 마킹 유니폼은 올 시즌 뜨거운 인기를 보이면서 이미 상반기에만 2만장 넘게 팔려나갔다.

여기에 기록 달성 기념 유니폼까지 출시되면서 김도영 유니폼 구매 열풍이 불었다.

KIA는 최근 김도영의 '월간 10-10'과 '최소 타석 내추널 사이클링 히트'를 기념하는 유니폼을 출시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

예상을 뛰어넘는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하루에만 200만 건 이상의 접속이 이뤄지면서 로그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13만9000원이라는 가격에도 이날 분당 최대 1000건이 판매되는 등 판매 첫날 5만 여명이 김도영의 특별 유니폼을 구매했다. 하루 만에 70억여원의 팔린 셈이다. 27일에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니폼 사전판매는 30일까지 이뤄진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만큼 김도영발 흥행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도영은 '30-30' 기록에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40-40' 도전도 진행형이다. KIA는 김도영의 '30-30' 기록 추가 기념 유니폼 출시도 고민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 전남 대도약의 시작, 2025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8년 연속 **1조 원 이상 국비 확보!**
- 한국형 아우토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검토 착수!

전라남도
JeollaNamdo